

출판 예정인 '지침서 영어를 탈피하다' 원고의 일부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도서출판우공이산에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1. 영영사전은 과연 말하기 영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사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언제부턴가 영영사전이 영어 학습의 대안으로 떠올라 사용자들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편에서는 사전(辭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하기 영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사전이 어떠한 것인지, 사전이라는 것이 도움을 주기는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선택할 때는 선택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즉, 사전마다 적정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잘못된 판단 하나로 수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수록 형식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개념사전'형식으로 우리의 '국어사전'과 미국인의 자국어 사전인 '영영사전', 그리고 '그림사전'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어사전	<b>먹다</b> :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영영사전	<b>eat</b> : When you <b>eat</b> something, you put it in your mouth, chew it, and swallow it.	
그림사전	 먹다	 eat

#### <개념사전의 예>

또 하나는 '동의어사전(또는 유의어사전)'형식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한글동의어사전'이나 미국인의 자국어 동의어사전인 '영어동의어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은 무슨 사전에 해당할까요? 이들도 한국어에 대한 영어 동

의어를 다루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동의어사전’입니다.

한글동의어사전	<b>먹다</b> : 들다, 섭취하다
영어동의어사전	<b>eat</b> : ingest, swallow
영한사전	<b>먹다</b> : eat
한영사전	<b>eat</b> : 먹다

<동의어사전의 예>

‘개념사전’은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개념(뜻) 파악을 위해 활용하는 사전입니다. 그림 사전은 한국인 유아나 미국인 유아가, 한국어사전은 한국인 성인(6세 이상의 언어적 성인을 말함)이, 영영사전은 미국인 성인이 생소한 단어가 나타날 경우 정확한 뜻의 파악이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이 중에서 영어 그림사전은 미국인 유아나 한국인 유아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 그림사전을 한국인 유아가 활용해 단어를 익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영어 어휘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뜻은 외울 수 있으나 문장 속에서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타의 문법정보까지는 익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어 어휘력이란 단순히 단어의 뜻만 달랑 외워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앞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어사전’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 뜻이 같은 모국어 단어를 추가로 익히려 할 때 사용하며 한글동의어사전이 좋은 예입니다. 또, 어떤 뜻에 대해 우리말 단어는 알고 있으나 외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동의어사전은 유아의 경우에는 아직 사물에 대한 개념이 익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어 사전은 사물에 대한 개념 파악이 완료되고 모국어 단어를 땀 성인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영어 동의어 사전인 ‘영한사전방식’이나 ‘한영사전방식’으로 뜻이 같은 영어 동의어 즉, 영어 단어를 익히는 것은 사실 당연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은 말하기 영어 학습에 도움보다는 장애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동의어 사전이라는 점만 놓고 본다면 외국어 학습을 위한 용도로써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수록 형식과 내용이 인간의 어휘력 확충 원리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들 사전도 영어 단어 학습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이 실효적인 진짜 영어 어휘력을 기르는데 활용할 사전은 현재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 『영영사전은 말하기 영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영영사전으로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전이 말하기 영어 학습의 대안이 아니라고 하니 조금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영영사전은 말하기 영어의 대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영영사전의 수록 예를 보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영사전방식은 아무리 뜻 설명을 잘 해놓아도 사용자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인지를 확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 휘	개 념 설 명
①	A ① is a type of large, wild cat. ① have yellow fur and black spots, and live in Africa and Asia.
②	A ② is a wild animal that looks like a large cat with black spots on its body. ② can run very fast.

예컨대, 이 영영사전에서 단어 ①, ②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동물의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뜻 설명부를 해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휘력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도 독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석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 휘	개 념 설 명
①	①은 큰 야생 고양이과 짐승이다. ①은 오렌지색 털과 검정색 반점이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산다.
②	②는 야생 동물로써 큰 고양이처럼 보이는데 몸에는 검정색 반점이 있다. ②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자,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동물 다큐멘터리나 백과사전을 많이 본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러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영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각각 leopard(표범)과 cheetah(치타)입니다.

만약, '치타'가 '매우 빨리 달리는 동물'이라는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영사전의 개념설

명만으로는 ① 과 ② 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배경지식이 더 부족한 사람은 leopard 라는 단어를 살쾩이나 스라소니의 뜻을 갖는 단어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③ 과 ④ 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 휘	개 념 설 명
③	You use ③ to describe something that you admire and think is very good.
④	④ is the natural state of rest in which your eyes are closed, your body is inactive, and your mind does not think.

이번에도 개념설명부를 잘 해석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석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휘	개 념 설 명
③	③은 당신이 동경하거나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설명할 때 쓴다.
④	④는 눈을 감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연적인 휴식상태이다.

영영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들 단어는 소위 쉬운 단어로 취급되는 fine과 sleep입니다. 그런데 만약, fine과 sleep에 대해서 영한사전을 통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쉽게 어떤 단어라고 확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이 fine이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을 통해 처음 대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자의적으로 뜻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초보자에게 있어 영영사전을 통한 영어 단어 학습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영영사전은 우리의 사전으로 말하면 국어사전과 같습니다. 한국인이 통상적으로 국어사전을 많이 찾는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쯤과 직업을 가진 후 입니다. 초등학생 때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건 국어사전을 검색하는 이유는 모두 생소한 단어의 정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념사전인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모국어에 대한 높은 이해와 표현 능력이 발현된 6세 이상의 언어적 성인이 된 이후 입니다.

즉, 한국인인 여러분이 영영사전을 통해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6세 어린이 이상의 언어 능력, 모국어처럼 영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말하기 영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즉, 완전히 모순인 것입니다. 당연히 영영사전은 외국어 학습용으로는 부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설령 영영사전을 통해 위의 leopard, cheetah, fine, sleep가 어떤 뜻을 갖는 단어인지 모든 사람이 왜곡 없이 뜻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영한사전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과 진배없음을 뜻합니다.

leopard	표범
cheetah	치타
fine	훌륭한
sleep	잠자다

또, 영영사전으로 단어의 뜻을 학습할 경우에는 누구나 왜곡 없이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자마다 오독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한사전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영사전의 설명을 잘 해석해서 가장 적합한 한국어 동의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전문가인 영어 학자와 한국어학자가 공히 참여한 것이 때문에 뜻 설명이 잘못될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성인은 사물에 대한 뜻 파악과 그 뜻을 담고 있는 모국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영영사전이 아니라 단순히 영한사전 같은 동의어사전 방식으로 익히는 것이 말하기 영어 훈련을 하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eat** :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eat** : When you **eat** something, you put it your mouth, chew it, and swallow it.

즉, 성인은 모국어 단어를 뜻 그 자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 영영사전의 설명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보다 단순히 영한사전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더 쉽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at** : 먹다

이렇게 하면 한국인 중에서 '먹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사람은 없기에 이 방식보다 더 확실한 개념설명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영사전과 같은 개념사전 방식으로 외국어 단어를 익히는 것은 지극히 황당한 방식입니다. 영영사전은 미국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이지 외국인인 우리의 영어 학습용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어 학습에 최적화된 형식의 교구가 필요한 것이지 영어 학습에 이로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영영사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영사전을 사용해서도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효과를 본 이유는 개념사전 방식 때문이거나 한국어를 배제한 상태로 익혀서가 아니라 영영사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문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문이 없는 영영사전이거나 최소한의 기초 어휘력도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정도의 효과는 비단 영영사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한사전이라도 예문위주로 학습하거나 영어 원서를 다독하는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영영사전만이 갖는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즉, 많은 예문을 경험하는 속에서 단어와 단어 간 관련성과 단어에 내재된 문법 정보의 규칙성을 우연적으로 깨달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만한 효과를 얻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간의 낭비와 고통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두뇌는 고단한 방법에서는 능동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조장한 영영사전 만능논의 환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 2. 그림사전, 또는 그림을 이용한 학습법은 말하기 영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영한사전은 또 어떠한가?

『그림사전 또는 그림을 통해 문장을 익히는 방식도 말하기 영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영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모국어)의 개입을 철저히 막아라? 왜?』

영영사전이나 그림사전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단어나 문장 학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영한사전처럼 영어 단어의 뜻을 익힐 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게 되면 독해를 할 때 곧바로 영어 단어를 통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익힐 때 매개로 썼던 한국어 단어를 통해 이해가 되게 되고 영작을 할 때에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watermelon → 수박'과 같이 한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두뇌에 watermelon의 진짜 뜻이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수박이라는 한국어가 익혀지게 되어 독해하거나 영작할 때 곧바로 개념적으로 이해되거나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로 한국어 단어인 수박을 거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This is a waterme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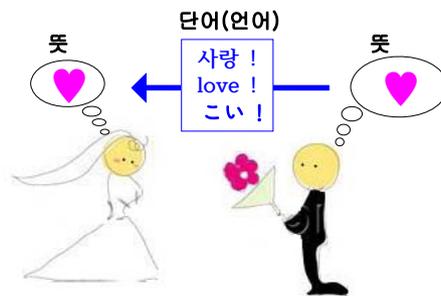


<한국어의 도움 없이 이미지만으로 익히는 예>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의 도움이 없는 영영사전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교구를 통해 단어나 문장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어 단어를 익힐 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두뇌에 개념적으로 익혀지지 않고 한국어 단어의 형태로 익혀지므로 영한사전방식과 같은 '동의어사전'을 배척하고 반드시 '개념사전'인 영영사전이나 그림사전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당찮은 말입니다. 중간에 한국어가 개입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중간에 한국어로 변환한 후에 이해하거나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문법공식에 낯 단어를 끼워 넣는 기형적인 독해와 영작 방식의 부작용인 것이지 단어나 문장을 익힐 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개념(뜻)에 단어라는 외피를 입혀 의사소통을 합니다. 즉, 단어를 이해할 때 글꼴이나 발음이 아닌 내재된 뜻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단어가 익혀진 상태라면, 익힐 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건 영어의 도움을 받건 또는 그림으로 익히건 익힐 당시 사용된 매개를 중간 단계로 두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념(뜻)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은 심리학적 상식입니다. 왜냐면 익힐 때 어떠한 교구를 활용하든 두뇌에는 개념의 형태로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주장처럼 한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뜻이 개념적으로 직접 두뇌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의 형태로 두뇌에 익혀진다면, chimney라는 단어를 각각 글씨체(font)를 달리해서 익힌다면 익혀지는 뜻이 다르게 되거나 활용할 때에도 자신이 익힌 글씨체로 중간에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 단어의 뜻을 익힐 때에도 익힐 당시의 촉매제로 사용된 특정 그림이 중간단계로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chimney의 뜻을 어떤 글씨체로 익히든 또는 어떤 그림으로 익히든 그리고, 어떤 특정 언어로 익히든 동일한 개념으로 기억합니다. 즉, 단어를 익힐 때 사용한 촉매제가 무엇이든 두뇌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단어를 익힐 때 한국어 단어를 이용하면 두뇌에 뜻이 아닌 한국어의 형태로 기억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영롱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어 단어를 익히는 방법에 있어 모국어인 한국어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림의 도움을 받는 것과 외국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효과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어 단어를 익히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국어인 한국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면, 모국어는 사물의 뜻을 익히는 과정에서 함께 익혀지기 때문에 모국어 단어는 그 자체로서 뜻을 가장 폭넓게 담고 있어 그림이나 외국어 단어로 설명된 것 보다 훨씬 이롭고 효과적입니다. 모국어 단어인 [굴뚝]은 수많은 다양한 ‘굴뚝(즉, 공장굴뚝, 산타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굴뚝, 초가집 굴뚝, 낮은 굴뚝, 높은 굴뚝, 흙굴뚝, 기와굴뚝, 콘크리트 굴뚝 등등)’에 대한 체험을 통해 공통된 특징을 뽑아 익혀 두었기 때문에 외국어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데 한 두 장의 그림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한국어에 [자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뜻을 갖는 영어 단어는 pomegranate입니다. [자류]는 비록 한국어 단어이지만 영어 단어인 pomegranate처럼 생소하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이 단어들의 뜻을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통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글동의어사전 방식 : 석류 → 자류
- 영한사전 방식 : pomegranate → 석류
- 한영사전 방식 : 석류 → pomegranate

결국, 한글동의어사전이나, 또는 영어에 대한 한글동의어사전인 영한사전 또는 한영사전 방식을 통해 익히는 것은 단어의 뜻을 익히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인이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 단어 [석류]를 촉매제로 추가의 한국어 동의어인 [자류]나 영어 동의어인 [pomegranate]를 익히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석류]를 다른 말로 [자류]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pomegranate라고도 한다고 한국어 단어를 통해 가볍게 익히면 그만인 것을 굳이 '개념사전' 방식으로 익혀야 하거나 한국어를 배척해서 익혀야 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자류	자류는 인도, 페르시아가 원산지로서 높이는 3미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으로 광택이 난다. 5~6월에 짙은 홍색의 육판화가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으며 불규칙하게 갈라져서 연한 붉은색의 투명한 씨를 드러낸다.
자류	

<한국어 자류의 개념사전 설명 예>

pomegranate	A <b>pomegranate</b> is a round fruit with a thick reddish skin. It contains lots of small seeds with juicy flesh around them.
pomegranate	

<영어 pomegranate의 개념사전 설명 예>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영영사전이나 그림사전이 아닌 한국어의 도움을 통해 말하기 영어에 성공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한국어가 개입된 사전이나 교구는 절대 안 된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98년 이후 영영사전 열풍일 불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았다는 자료가 확인된 바 없는데도 아직도 영영사전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한국어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정말 한국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익힐 때 영영사전처럼 장황한 설명을 해주거나 그림으로 표현해줘야만 뜻 파악이 된다면 그는 성인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개념이 없고 모국어 단어가 완성되지 않는 유아인 것입니다.

결국, 성인은 모국어 단어에 사물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치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보다 영어 단어에 대한 뜻을 잘 설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인은 유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은 성인에게 가장 이로운 매개인 모국어를 통해 단어를 익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성인은 외국어를 익힘에 있어 모국어 단어에 대한 동의어 단어를 익히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개념사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궁금증을 확 풀어주는 동의어사전(즉, 영한사전, 한영사전) 방식이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어 문장에 대해 독해나 영작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한국어의 도움을 통해 영어를 익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진짜 어휘력과 문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종래의 기형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한 결과 나타난 후유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어 단어는 한국어에 대한 영어 동의어'이기 때문에 똑 같은 개념(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국어를 배제해서 익히기 위해 영영사전이나 그림사전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특히 그림사전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단어나 문장 학습을 하라는 것은 성인에게 다시 유아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래의 영한사전, 한영사전도 말하기 영어의 대안이 아니다. 사전은 본래 영어 학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일 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영사전이나 그림사전과 같은 개념사전 형식은 말하기 영어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외국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은 단연코 동의어사전 형식입니다. 따라서 동의어 사전의 수록 방식을 택하고 있는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종래의 영어 교육이 영영사전이나 그림사전보다도 영한사전방식으로 쭉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실로 참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영영사전이 마치 대단한 학습 교구인 것처럼 거들먹거릴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이 영한사전 방식의 학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중의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을 이용하는 영어 학습도 결국 백전백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전이 말하기 영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인간의 두뇌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높은 어휘력과 문장력이 길러지는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맞춤의 사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의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인간은 단어를 익힐 때 글꼴이나 발음이 같은 것에는 개의치 않고 뜻이 다르면 모두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또, 단어를 낱 단어로 외워 문법 이론에 끼워 조립하는 방식으로 언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법 정보로써 관계하는지를 통합적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영한사전은 글꼴이 같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나열하는 등 인간에게 외국어 능력이 발현되는 원리와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영한사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은 동영상 등에서 누차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입니다. 왜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영어 관련 사전이 말하기 영어 학습에 별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사전의 도움을 받았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이 아니라 다른 교구를 통해서도 오랫동안 노력하면 얻어지는 통상적인 소소한 결과인 것이지 사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즉, 현행의 사전이 영어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가 없고 심지어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전은 본래 말하기 영어의 학습교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사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사전이 어휘력이나 문장력을 기르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이란 본디 모르는 단어의 뜻을 검색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지 영어 학습서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록 방식도 검색에 용이하도록 알파벳 별로 나열하고 같은 글꼴을 갖는 단어를 한 곳에 모아 정렬한 것입니다.

영영사전도 검색의 용이성을 들어 글꼴별로 모아 단어를 수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한사전은 영영사전을 그대로 번역해서 최적의 한국어 동의어를 선정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즉, 본래부터 사전은 영어 학습에 이롭도록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엄밀히 보면 사전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영어 교육 정책과 교육이론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어 학습서처럼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사전은 말하기 영어 학습서의 범주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다고 해서 영어 어휘력과 문장력, 그리고 독해와 듣기,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전을 영어 학습을 위한 대안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고정관념을 버리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도서출판우공이산](#)에 있습니다.